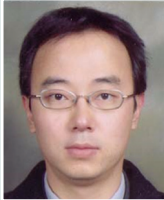


ASEAN의 떠오르는 신흥국(베트남)의 성장요인 및 성공적 진출 전략

KICEM



김창영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소장

1.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

1.1 국내 기업 해외진출 현황

최근 국내 건설산업계는 글로벌 경기 및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더욱 적극적이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을 포함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도시 설계/개발” 관련 이슈들은 국내외 모든 글로벌 건설 투자 및 개발 관련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신도시 설계, 개발 및 건설기술은 많은 글로벌 건설전문가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이러한 도시개발 경험과 실적을 기반으로 탄생된 K-Smart City 개발 브랜드는, 우리만의 경험이 축적된 차별화된 도시개발 브랜드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 설계사 및 엔지니어링사들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협업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1.2 해외진출 현실과 부작용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색이 대단히 강한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배제하고 현대 도시의 경제적 발전 모델만을 기계적으로 옮겨 심으려 한 초기의 여러 도시 개발 프로젝트 사업들은, 도시 규모의 성공적인 확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도시 환경의 변화는 지난 40년간 한국이 겪은 것보다 더욱 급진적이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와 이를 대표하는 도시를 대함에 있어 오로지 우리의 과거경험에 의존한 계획 및 개발 방식으로만 접근하려는 시도를 고집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지속성이 떨어지는 성과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실무자들은, 해외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현지의 비판적인 의견들에 가로막혀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겪고 있다.

사업 주체들이 서로 다른 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의 파트너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 그 도시의 문화, 역사, 정치, 사회, 생활, 관습 등 사업 외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이해해야 하며, 서로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접촉과 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에서, 오늘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 중, 문화적·사회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분야의 확장 속도가 특히 두드러진 베트남의 특징과 그 성장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 ASEAN - 인도차이나반도 진출 거점국가 베트남

2.1 21세기 세계시장에서 ASEAN의 역할변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과 같이 21세기,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 아시아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전면에서 서게 되는 상황들은 이미 세계의 성장 축이 아시아로 이동중임을 확인하게 만드는 지표이다.

지리적 위치로 보았을 때, 인도차이나반도는 인도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위치(물류 이동에 있어서도 By Sea ⇄ By Land)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중국 인구(1위), 인도 인구(2위)에 이어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를 포함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약 6억인구로 유럽연합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한 경제적 결속력으로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ASEAN 국가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을 눈 여겨 보고 있다.

2.2 과거 생산기지에서 현재 경제분야 파트너로 관계변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은 베트남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주역이었던 섬유봉제,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들은 한국 기업인들에 의해 현재 베트남의 주력 산업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 화학 등 중공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전략적 생산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인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베트남은 여전히 많은 동남아 국가 중의 하나로 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우리나라 무역, 투자 등 경제 분야의 핵심적 파트너로서의 매우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서 경험한 현지의 발빠른 변화 상황들과 더불어 향후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3 미래시장의 우량 소비주체로 변화: 생산기지의 수동적 근로자에서 주체적 소비자로의 전환

우선 대부분 베트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 및 일반인들은 현재 베트남에 많은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들어와 많은 시설투자를 하였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이전의 투기 자본의 유입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국민 경제가 향상 되고 있다는 점은 현 베트남 FDI 증가 현상의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그 영향으로 현재 베트남 근로자의 다수가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으며,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시작되는 선상에 있다. 이는 베트남 내수뿐만 아니라, ASEAN 6억 인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베트남-인도차이나반도-아세안을 거쳐서 인도양까지 시장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10%이상 상승이 되었으며 2017년은 7.3% 상승 시키는 것으로 최근 확정 예정이다. 이

러한 임금 상승률로 인해 베트남도 5년 이내에 저임금 노동자라는 강점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부측에서도 그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FDI 유치 방안들을 세우고 있고, 외국 투자비용 개선, 주식투자 육성 및 외국인 부동산 투자법 개정 등으로 베트남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외국투자(제조업체의 설비 투자 이외의 국내 소비재나 서비스 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여전히 투자행위 진행 시 정부측과 여러 관련자들의 관행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우리 기업 진출의 리스크로 남아 있지만 그들도 최근 국영건설사의 회장을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을 하고 공직자들의 재산이 연 2억동(천만원)이상 변동 시 신고를 하게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사회 청렴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베트남의 주요 성장 요인

그간 베트남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는 여러 요인이 있었으나,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는 꾸준히 베트남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경제, 무역협정 확대(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및 외국기업의 서비스 시장 투자확대(해외기업의 서비스 시장 투자확대)를 볼 수 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자본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자본시장 개방확대,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30대 이하의 우수한 노동력(65세이상 6%)과 황금소비세대(소득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레저산업 및 도심주택 수요 확대 예상, 도시화율 점진 확대 예상)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 동력 중, 현재 급변하는 베트남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다.

▣ 외국인 주식투자 규제완화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점진적으로 개방함으로 지속적인 외국자본 유입 기대와 경제 규모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존 외국인 지분투자를 49%로 제한한 것과는 다르게 2015년 9월 이후 외국인 한도를 49%에서 100%로 확대 발표 하였다. 이는 증권사 및 운용사 등의 100% 완전 개방으로 점진적 전면 개방이 기대 된다. 또한 국영기업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을

진행 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처의 확대라는 점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유통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최근 베트남 영화관람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지난달 정부측에서 전자 상거래법 정립을 위한 정부측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문화와 현대적인 유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변국에 비해 유통시설의 현대화 비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주변 어떤 나라보다도 관련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본다.

▣ 부동산 시장개방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대상 부동산 소유 규정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요한 변화는 초기 제한적으로 해외동포에게만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었으나, 일시적으로나마 일부 외국인에게 아파트 구매가 한시 허용 된 것과, 2015년 7월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허용조건이 대폭 완화 되어 거주, 임대 및 판매 목적까지 허용 되었다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인 점을 고려 한다면 고무적인 요인이라 생각된다.

▣ 주택시장 투자법 개정

외국인 소유 가능한 주택 종류가 제한이 없어졌으며 (2015년 7월 1일 주택법 발효) 소유가능 주택수량에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소유기간: 50년후 연장 가능)

최근 급변하는 주택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0년 전후로 하여 급락하였던 주택시장이 최근 고급 주거시설과 20-30대 젊은 층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세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30대 부부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전체의 도시화 수준이 아직 많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전망이 밝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고급 주거시설들을 위주로 한 투기 자본들이 베트남 외국인 부동산 투자법 개정에 맞춰 베트남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어 고급아파트의 수요는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같이 정치, 경제사회 발전 속도가 우리의 발전보다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여과 없는 관계 형성 보다는 그들의 생각, 즉 우리의 과거 성장 기준이 아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특성을 바로 알고 접근한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삐삐에서 스마트폰까지의 발전 단계로 우리와 베트남 사회를 비교하자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삐삐나 시티폰 시절의 기억이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인식되지 못할는지 모르겠다. 즉, 스마트폰까지 성장변화 단계에서 우리는 유선전화-삐삐-시티폰-핸드폰-스마트폰의 5단계를 거쳤지만, 그들은 초기 유선전화에서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 단계로 단기간에 뛰어넘은 것이다. 도시개발과 변화 속도에 있어서도 이런 양상은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해외 진출에 매우 긴 시간이 요구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을 바로 알고 접근한다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효율적인 ASEAN-인도차이나반도-베트남을 진출을 위하여, 5년전, 10년전, 100년전의 베트남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 미래 5년, 10년, 100년 후의 베트남을 예측하고 진단하면서 현지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4. 결론 및 시사점

-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서두에 언급 한 것과